

## 2000년대의 한국도서관

김 세 익  
이대도서관학과교수

### 1. 서 론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듯이 도서관도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도서관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전문성이 내재하고 문화적인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노력도 방향감각이 정확하고 도서관 기능의 본질적 이해의 파악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도서관수가 많아진다거나 사서의 수가 몇배로 늘어난다거나 서가에 책이 많아진다는 그런 현상이 곧 발전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이며 본질이 아닙니다. 봉사의 확대와 확충만이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 문화의 풍토의 개선, 제도의 현대화와 합리화 등 우리들의 의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야 할 문제는 「2000년대의 도서관」과 「2000년대의 한국도서관」은 똑같은 개념일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의 도서관이 2000년대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는 2000년대의 한국 도서관에 대해서 쉽게 이정표를 설정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쩌면 탁상공론이나 구름 잡는 헛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도서관의 기본이나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덜된 상황에서 우리의 이상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공도서관이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입시준비의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도서관문화의 모체가 되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이 몇개나 존재하는가 라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교실의 연장이어야 하고 학습현장이어야 할 학교도서관은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없거나 있어도 학교도서관의 본래의 구실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대학이나 특수도서관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학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라 하면 도서관업무의 기계화, 컴퓨터의 도입, 정보의 기계검색, 라이브러리 오토메이션 같은 것을 암시해 주는데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 도서관의 기초작업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런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2000년대를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도 요새는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으니 얼마후에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컴퓨터가 활용될 것이며 2000년대에는 컴퓨터시대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업무에도 컴퓨터가 활용될 것이 분명하며 그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놀랄일도 아닙니다. 컴퓨터 말고도 편리한 여러가지 기계가 도서관업무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변화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특기할 일이 못됩니다. 기원전 2,3000년전부터 있어 온 도서관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이미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변화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어떤 때에는 다소 느리게 발전해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도서관도 질과 양에 있어서 급템포로 발전했고 특히 2차대전 후 그런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 될 뿐입니다.

도서관의 기계화나 컴퓨터이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도서관문화 즉 우리나라 도서관 사업의 기초공사를 다져야 할 때이며 2000년대를 맞이하여 탄탄한 기초위에서 도서관업무의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의 거리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가지 문제는 출판물의 수적, 양적 증대와 그 처리 그리고 자료활동의 국제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 자료의 발전을 비롯한 각종 정보전달 매체의 놀라운 발전때문에 책없는 도서관 즉 서고에서 책이 없어지고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책이외의 매체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마다 책의 출판량은 놀랄만큼 증대되어 어느 도서관이건 쏟아져 나오는 책의 처리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이 인류문화의 기록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적 교량이라고 할 때 이 처리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기계처리같은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은 도서관의 전문화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의 기지로서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일반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전문분야의 연구 조사를 위한 전문도서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도서관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종합한 의미에 있어서 큰 국립도서관들이 지금보다 훨씬 개성화 되고 전문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자료활용의 국제화는 국가서지의 편찬에 있어서 보다 망라적이며 정확해야 할 것이며 주제별 서지작업도 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하고 신속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적인 봉사방법이나 기술에 많은 기계화가 되는데 그것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심지어 가정생활에도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게 됩니다. 토양이 허약한 곳에서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저의 결론적 견해는 2000년대에 가서는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이 각기 독립된 장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공학, 통신공학, 심리학, 통계학, 언어학, 고

등수학 같은 것이 그 소재로 형성되는 정보과학이 도서관학과 같거나 도서관학이 정보과학화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서지학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보과학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 보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기계화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화가 바로 정보과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고 키편치가 별도로 교육을 받고 컴퓨터테크니션이 양성되는 현실에서 사서는 정보과학적 방법이나 수법을 선택적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거는 미국식 실용주의보다 서구적 교양주의에 더 큰 비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도서관학 교육의 커리큘럼 편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의 한국 도서관학계에서 너무도 많은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 3. 다양해질 도서관의 유형과 봉사패턴

사서가 기계화의 모든 부문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대의 도서관에서는 이른바 사서이외에 많은 기술자들이 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기계를 조작하거나 필요한 여러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술자나 기술자 조수가 도서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새로운 도서관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서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업무의 분업화 사서나 도서관 직원의 다양한 구성 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일각에서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는 정보과학적 사고의 지나친 강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의 기계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종류나 기능의 다양성 때문에 사서가 그 모든 것에 정통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ibrarian과 Documentalist의 공존이 2000년대의 도서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과학이란 개념자체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이 상호협력 보안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며 이 두개의 개념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전산학파가 따로 있고 정보처리를 다루는 분야가 독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욕심스럽게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Data Bank와의 협력체제, 정보센터와의 연계문제 등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처리는 대부분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업체에서는 도서관이나 자료실 외에 전산실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전산실에서는 회사의 일반 행정사무의 기계처리 이외에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정보처리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도 많지만 도서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고대도서관은 일부 귀족이나 부호의 것이었고 중세에 와서는 수도원이나 대학같은 성직자나 학자그룹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새로운 세력으로 사회에 진출한 중산계급들이 만든 개인 도서관이었다는 것을 도서관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기까지는 일반서민이나 일반서민을 위한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17세기에 새로운 도서관 사상이

「카부라엘 노래」(1600~1653)와 「월 헬름 라이부짓허」(1646~1716)에 의하여 제창되었는데 그들의 사상의 요점은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비판이며 특권계급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일반서민 대중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과 도서관 장서 구성에 있어서 진본이나 희귀본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신문헌의 수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도서관의 가치기준은 장서량이 아니라 질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서관 사상이 그후 100여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개화하게 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크린」에 의하여 시작되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19세기 「멜빌 듀이」와 같은 선각자들에 의하여 미국사회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도서관 사상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서구사회의 교양주의와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근세 서구의 도서관은 이 갈등과 혼란속에서 그 나름의 길을 모색하다가 지금은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가는데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셈입니다.

일본을 거쳐 서구적 교양주의의 영향권에서 자란 우리의 근대문화는 더 큰 갈등 속에서 헤매야 했고 도서관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서구와 달라서 아직도 갈등과 불안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도서관의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자동화가 안되었다거나 컴퓨터가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도서관의 철학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용주의도 못되고 교양주의적도 아닌 상태입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깊은 뜻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접착할 수 있는 도서관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 운영의 정상적인 방법론을 수립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철학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정보처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도서관학에서 정보과학이 「이슈」가 된것은 일부 특수 전문도서관이나 대학 연구도서관에서였습니다. 그런 도서관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으며 또 계속해서 설립될 것입니다. 즉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같은 것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생기고 주민이 사는 곳 어디서든지 도서관 봉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2000년대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정보센터 일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독서센터, 심지어는 오락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전」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서 독서하거나 남은 세월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 주부들이 교양독서생활을 즐기고 생활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시설, 어린이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독서습관을 기르고 독서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컴퓨터가 이와같은 인간적인 일까지도 처리해 주리라고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도의 기술개발이나 정보처리를 위한 도서관을 발전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어느 시대나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많은 여타 도서관이 전국에 산재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바램입니다. 구라파나 스칸디나비아 여러나라의 사서 양성 제도는 이것을 여실이 증명해 줍니다. 고급, 중급, 하급사서를 나누어 양성하는 제도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중급,

하급 사서라는 것은 능력이나 자격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과 업무 차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말로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도서관이 상상외로 부진한 것은 우리들 사서의 봉사태도나 몸짓에도 그 책임이 일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의 구체적인 제언은 뒤이어 말씀하실 네 분의 전문가들의 말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사실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날 표현은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그 중의 어떤 것은 실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외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한국의 도서관 풍토에 맞추어 실현성 있게 주장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한국도서관문화의 실질적인 증흥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 영국에서 韓國司書を 求합니다.

영국의 Sheffield대학에서는 한국학 Computerized Union Catalog를 편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heffield대학에서는 이 작업을 주관할 경험있고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사서를 찾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은 Sheffield대학 도서관학과에서 학비면제로 도서관학을 수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r. Judith Cherry  
Korean Studies Unit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England S10 2TN